# 돌 의례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식과 지식, 돌 의례 상품 선택에 관한 연구*

Mothers′ Awareness and Knowledge of the First Birthday Rite(Dol) and Choice of First Birthday Rite Goods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부 교 수 주 영 애**

Dept. of Living Culture and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Ju, Young-Ae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결과 및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how the first birthday rite, a practice in Korean culture, has changed over the time.

A survey of 250 mothers was undertaken from October 11th to November 6th, 2012. The research questions ask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What general and expert views are held about the first birthday rite? What type of awareness and knowledge do mothers have about the first birthday rite? Is there any correlation between mothers' awareness and knowledge about first birthday rite? What is the importance of the components of the baby's first birthday rite and the importance of choosing first birthday rite good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7.0. Frequency, F-test, correlation were also employ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first birthday rite shows a clear link to socializing. It is a family event, but is also seen as an opportunity to

* 이 논문은 2012년도 전기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13년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주저자 : 주영애 (jyoungae@sungshin.ac.kr)

enhance relationships with relatives, colleagues, and friends. A banquet hall is chosen as preferred first birthday rite location, and participants are served a meal and receive gifts. The banquet information on first birthday rites was initially collected from the internet, blog cafes, and an experienced. However, it has become gradually more common to hire a consultant to organize the first birthday rite. Awareness of the first birthday rite is high, but knowledge is relatively low. In addition,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awareness and knowledge about the first birthday rite. When mothers are preparing for their baby's first birthday, they consider food for the guests' banquet, space and time. Finally, individual positive relationships were found between choosing first birthday rite goods and employee services, contract pricing for goods, and food for guests.

Key Words : 돌 의례(first birthday rite), 돌 의례 전문가(first birthday rite consultant), 돌 의례 상품선택(choosing first birthday rite goods)

## I. 서론

출생, 백일, 돌을 비롯하여 관·혼·상·제례 등의 가정의례는 가정적으로는 개별 가정생활문화를 전달하고, 가족원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한편 사회적으로는 그 사회의 생활문화를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주영애,2011). 생활과학 분야에서도 가족자원경영학연구에서는 가정생활문화를 전달하고 가족을 결속시키는 가정의례의 변화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 동안 가정의례 연구로는 관례연구(오환일·김정신·이행숙·조희진, 2002; 조희선·이혜자·이윤정, 2002; 김순진, 2003; 계선자·이정우·박미석·김연화, 2005; 주영애b, 2010)와 혼례연구(이지영,1998; 최배영,1999; 주영애a, 2010; 이향숙,2012), 상제례연구(홍현주, 1986; 송유미, 1990; 김인옥,2 003; 구숙회·최배영, 2011)연구를 비롯하여 가정의례의식연구(이지영, 1998; 장상옥, 2004; 정은선, 2005; 김인옥·안혜숙, 2003; 주영애, 2011; 옥선화·진미정, 2011) 등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한편 돌(이길표, 1998; 이온표, 2003)과 생일의례(안혜숙·김인옥·주영애, 2006; 장상옥, 2004) 연구는 관·혼·상·제례 및 가정의례의식 연구보다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관혼상제보다 오늘날 널리 보편적으로 지켜오고 있는 의례는 돌 의례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연구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목을 받아오지 못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적으로 자녀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하면서 출산율이 점차 감소하여, '한 가정 한 자녀'인 '외동이'시대로 변화해가고 있지만, 하나뿐인 자녀를 남다르게 키우고자 하는 부모의 열망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고, 따라서 자녀의 돌 의례는 가정생활주기 상 형성기에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가정의례로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돌 의례 문화의 변화 현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는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 갖고 있는 열망을 마치 부축이듯이 영유아를 고객으로 보는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여, 골드 키즈(Gold Kids)라는 신조어가 생기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돌 의례에 대한 연구는 가족자원경영학분야에서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할 시의적 연구라 사료된다. 즉 상

술한 바와 같이 가족자원경영학 분야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다각적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통합적 시각에서 가정생활을 조망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계시켜 왔다. 따라서 현재 변화되고 있는 가정과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돌 의례를 비롯한 가정의례의 변화현상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의례 준비의식, 의례관련 구매활동 및 의사결정 등과 관련된 관리과정에 대한 가족자원경영학 연구에서도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자녀의 첫 생일을 기념하는 돌 의례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도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돌 의례의 형식과 준비도 새로운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 돌은 집안에서 이루어지던 의례의 하나였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여성의 사회 활동이 증가하고 가사노동이 감소함에 따라서, 점차 가정에서 진행하던 전통형식은 축소되고 있고, 백일잔치, 돌잔치, 어르신들의 생일잔치까지도 음식점에서 해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손상희, 2006) 사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실제 돌 의례 구성과 내용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돌상의 종류, 돌잡이의 진행방식, 하객을 위한 이벤트 등도 첨가되는 등 변화가 계속 되고 있다.(임종송, 2010; 박상현, 2010)

현재 돌 의례 시장에서는 업체 간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성에 근거한 돌 의례의 형식이나 절차는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때다. 특히 소수의 자녀를 위해 최고의 돌잔치를 해주고 싶은 부모의 뜻은 돌 의례의 고급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한편 지나친 허례라고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기도 한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가정에서 전통 방식의 돌 의례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합동 돌 의례(경향신문, 2013.9.10)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각 기관(대한적십자사, 구미시청, 한화리조트, 의왕시민모임, 부산진구 여성단체협의회, 성주군, 원주시 등)에서 진행하는 다문화가정 돌잔치를 지원 사업은 이미 널리 확산되고 있다.(http://search.daum.net)

그러나 사회의 관심과 돌 관련 시장의 활성화에 비교하여 돌 의례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생활과학 분야에서 시도된 연구(이길표, 1998; 조희진, 1999; 이온표, 2004)와 민속학적 연구(주영하, 2003) 그리고 최근 관광경영, 호텔경영분야에서의 연구(김희경, 2005; 김정희, 2009; 임종송, 2010; 박상현, 2010) 몇 편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최근 들어 호텔관광 분야에서의 연구는 가정에서 행해 왔던 돌잔치를 '사회화'된 영역으로 간주하고, 돌잔치 시장과 연계한 이벤트, 돌잔치 장식, 돌잔치 연회 계획 등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측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유안진(2001)교수가 '가정의례의 변화와 21세기의 지향적 모색'연구에서 밝혔듯이 시대별 변화로 가정의례의 사회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특히 가정의례의 상품화와 상업주의화로 인하여 혼례대행업체의 성행과 제사상주문배달시대, 장례의 상업화의 지적을 넘어서 돌 의례도 사회화 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사회로부터 이어져 현재 가정에서 생활문화로 자리매김 되어 지켜오고 있는 한국 고유의 돌 의례에 대한 역사와 변화내용을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녀 돌 의례에 대한 어머니들의 일반적인 견해와 돌 의례 전문가에 대한 기대, 돌 의례에 대한 인식과 지식정도, 돌 의례 구성요소와 돌 의례 상품 선택과의 관련성 등에 관하여 조사해 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변화해 가는 돌 의례 문화를 재고해 봄과 동시에 이를 토대로 현시점에서 점차 사회화 되어가고 있는 돌 의례문화 변화에 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에서 돌 의례연구로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후속연구에 대해서도 제언해 보고자 한다.

## Ⅱ. 이론적 배경

### 1. 가정의례문화의 변화 현상

가정의례는 인간이 출생에서부터 일생을 통해 겪게 되는 관혼상제 등 일련의 의례로, 이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가정의 삶의 역사까지 담아내는 귀중한 우리의 '가정생활문화'이다. 가정의례는 거시적으로는 시대변화, 문화교류, 사회변동, 문명의 발달 등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변화하며, 미시적으로는 혼인을 통하여 서로 다른 두가정의 의례가 혼재하면서 새롭게 변화되기도 한다. 전통적인 가정의례는 우리 사회가 갑오경장이후 급격한 변화 과정을 겪어 왔다.

가정의례 중 혼례는 개화기에 기독교의 전파와 서양식 교육기회의 확대,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서양식의 혼례가 도입되어 확산되었고, 동시에 일본강점기를 거치고 광복 후 미국의 문화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면서(이향숙,2011), 점차 서구식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전통혼례의 풍습이나 성격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는 서구화되었으나 새로운 형태로 신식혼례와 결합하여 변형·지속되고 있다(박혜인,1987). 그와 동시에 전통혼례는 본래의 진정한 의미는 상실, 왜곡 또는 굴절되어(이향숙,2011)가는 일면도 있다. 현재 전통혼례는 각 기관과 단체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정의 혼례를 위해 시행되고, 또는 외국인을 위한 경험차원으로 진행되는 현상을 볼 때, 실제 한국인에게 '전통혼례'를 통한 가정생활문화 전수는 단절되고 말 것인가라는 의문을 남게 한다. 반면, 외형적인 혼례는 서구화되었어도, 전통혼례의 풍습의 내용과 절차인 함, 폐백 등 전통적인 혼례 풍속의 일면을 유지하고 있는 바(이광자,1999; 정영숙·권수애·장혜자,2001; 주영애,2010a)를 볼 수도 있다. 즉 혼례에서는 형식상 전통과 현대의 혼재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여성가족부와 조선일보는 대대적으로 '작은결혼식' 캠페인을 진행했고, '1000명의 작은 결혼식 릴레이 약속'(THEPR news, 2013.2.12) 등을 확산하면서 최근의 호화결혼식, 과다 혼수 예단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의 지도층이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이도록 했고, 관공서를 예식장소로 개방하여 현행의 혼례문화의 변화를 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통적인 성년례는 1894년 갑오경장 이후 단발령으로 인해 상투와 관으로 상징되던 관례의 형태도 그 의의를 잃게 되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주영애,2010b). 그러나 1972년 3월 30일에 대통령령 제 6615호에 의거,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정하고 국가차원의 성년의날 행사를 거행하면서(1973.4.20) 관심을 갖게 되었고, 1999년 8월 31일에는 관례를 성년례라 하여 매해 5월 셋째주간을 성년주간으로 정하게 되었다. 오늘날 성년례는 이 기간을 중심으로 학교나 관공서에서 집체성년례, 개별성년례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 형식은 전통성년례를 특징을 살린 현대식 성년례가 공존하고 있다. 일련의 성년례 모형개발 연구(조희진·김정신, 1998; 이정우·김연화·김경아, 2000; 조희선·이혜자·이윤경, 2002; 김순진, 2003; 계선자·이정우·박미석·김연화, 2005)는 실제 성년례 시행에 적용되고 활용되어 왔다. 한편 가정에서의 개별성년례의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주영애, 2010b)도 이루어졌다. 시대변화에 따라 형식은 변화하더라도 '관례'가 갖고 있는 본연의 의미인 '성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도록 깨우치도록 한다'는 취지는 이어져오고 있는 우리의 문화가 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제례는 유교식의 제례가 16세기 경부터 정착,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일반화되어왔던 것(문옥표,2007)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제례는 인구가 도시적 환경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변화상이 나타났지만, 2000년도에 행해

진 전국 규모의 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의 78.3%가 유교식 제례를 지낸 것으로 나타나 있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제례관련 일련의 연구(박순천, 1986; 박수정, 1989; 김인옥, 1997)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 가정의례 중에서도 제례는 전통적인 형태로 유지되는 바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례는 유교식 뿐 만 아니라 그 형식상 종교적인 특성을 반영한 불교식, 천주교식 기독교식의 다양한 제례형식이 공존하고 있다. 각 개별가정의 종교에 따른 제례경험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3,4대에 까지 동일한 가정의 종교를 지키고 있는 가정에서는 다른 종교를 가진 가정의 제례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연구(구숙회,최배영,2011)에 의하면 우리사회의 다양한 종교적 특성을 감안하여, 유교식 기제를 중심으로 한 '제례'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각 종교별로 고인을 기리고 생각하는 '추모의례'로 통칭할 수 있음을 제시한 바는 변화하는 우리의 가정의례문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사회에서의 추모의례문화는 형식이나 절차가 점차 축소되면서 보다 간소화된 모습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견(구숙회, 최배영, 2011)하고 있다. 또한 추모의례의 주관자가 부모에서부터 자녀로 변화되거나, 종교적인 추모의례가 접목되어 사찰이나, 교회, 성당 등의 기관, 또는 추모시설인 봉안당, 산소, 수목공원 등에서 행하는 형식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구숙회, 최배영; 2011)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례문화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매장문화가 유교적인 전통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으나 오늘날 상례문화에서는 사회변화, 매장지의 제한 등과 맞물려 화장문화와 봉안당 설치 등의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가정의례준칙에 따른 장례식장이 등장하여, 과거에 가정외에서의 죽음은 비정상적인 객사로 간주했었으나, 오늘날에는 장례식장에 모시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상례절차로 이해되고 있다(김시덕,2005). 또한 상례에 필요한 음식, 상례복, 상장례 용어 등도 외형적으로 변화되고, 사회로 이양되고 있는 문화적 현상이 뚜렷해 졌다. 뿐만 아니라 상장례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주는 전문직업인인 장례지도사가 등장하여 활동하고 있다. 즉 상례문화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가정에서 장례식장으로, 자손에서 장례지도사로, 굴건제복 등의 전통형식에 따른 상례복에서 양복을 중심으로 한 현대의 상례복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례의 사회화, 간소화, 편리화, 기간의 단축화 등의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이 관혼상제 등의 가정의례는 사회의 변동과 시대성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전통가정의례의 의미나 가치를 일부 유지 계승 발전시키고 있으나 변화된 외형적 특성을 보면, 간소화, 편리화, 사회화, 수행의 전문가 등장 등의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가정의례의 변모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학계에서는 그 안에 녹아있는 '한국의 문화적 속성'을 반영한 보다 타당성 있고 실현 가능한 의례문화 형성을 위해 깊이 숙고하고 연구하여,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2. 돌 의례의 역사와 변화

관혼상제의 가정의례와 더불어 돌 의례는 예로부터 지켜왔던 일생의례 중 중요한 의례였다. 돌은 출생 후 1년간의 생존의 어려움과 질병을 극복하고 잘 성장하였음을 축원해주는 뜻 깊은 의례였던 것이다.

돌 의례에 대한 역사는 왕조실록, 고문헌 기록이나, 실증 자료를 토대로 살펴볼 수 있다.

돌에 대한 기록은 중국 남북조(南北朝) 시대 말기의 귀족 안지추(顔之推:531~591)가 자손을 위하여 저술한 교훈서인 안씨 가훈에서 찾을 수 있다. 돌은 예로부터 초도일(初度日), 수일(晬日), 주일(周日), 주년(周年) 등으로 일컬어져 왔는데

〈표 1〉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돌 의례

| | | |
|---|---|---|
| 영조 41권, 12년(1736 병진 / 청 건륭(乾隆) 1년) 3월 15일(기유) | 이미 돌이 지났으니 기쁜 마음이 갑절이나 간절하며, 시기로 보면 일찍이 책봉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도다. | 顧厥初岐嶷淵凝之非常, 則其長聰明仁孝之可必 |
| 영조 41권, 12년(1736 병진 / 청 건륭(乾隆) 1년) 3월 16일(경술) | 황조(皇朝)의 구전(舊典)에는 오히려 첫돌이 되기 전에 책봉을 받은 경우가 있었고, 영고(寧考)의 휘규(徽規)에 있어서도 품에서 벗어나자 책봉을 더한 바 있었다 | 皇朝舊典, 尙有未晬而受封, 寧考徽規, 亦於免懷而加冊 |
| 숙종 61권, 44년(1718 무술 / 청 강희(康熙) 57년) 2월 24일(계묘) | 병인년 5월 21일에 이르러 회현동(會賢洞) 우사(寓舍)에서 탄생하였는데, 어려서부터 빼어나게 슬기롭고 의젓하고 유순하였으며 아직 돌을 지나기 전에 능히 말을 하였다. | 至丙寅五月二十一日, 誕生于會賢洞寓舍 。 幼而英慧婉順, 未周甲, 已能言語 |
| 정조실록 정조대왕 행장(行狀) | 백일(百日)이 채 안 되어 서고, 일년도 못 되어서 걸었으며 말도 배우기 전에 문자(文字)를 보면 금방 좋아라고 하고 또 효자도(孝子圖)·성적도(聖蹟圖) 같은 그림 보기를 좋아했으며 공자처럼 제물 차리는 시늉을 늘 했다. 의복은 화사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때가 묻고 솔기가 터진 것도 싫어하지 않았으며 노리개 같은 것은 아예 눈에 붙이지를 않았다. 돌이 돌아왔을 때 돌상에 차려진 수많은 노리갯감들은 하나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저 다소곳이 앉아 책만 펴들고 읽었다는 것이다. | 未百日而立, 未周歲而步, 自未語, 見文字則輒有喜色, 喜觀孝子圖 丶聖蹟圖, 常效夫子設俎豆之儀 。 衣不御華美, 汙綻而无斁, 玩好之物, 未嘗寓目 。 流虹之初回也, 晬盤百玩, 一無顧焉, 端坐展書讀之 |
| 순조 30권, 28년(1828 무자/청 도광 8년)7월 18일(병진) | 대신(大臣)·각신(閣臣)·경재(卿宰)들을 경춘전(景春殿)에서 불러 보았는데, 원손(元孫)이 태어난 돌(初度)이기 때문이었다. 여러 신하들이 둘러서서 원손의 모습을 우러러 보며, 서로 축하하기를, “훌륭한 모습이 보통 사람보다 월등히 빼어났으니, 실로 우리 나라 억만년 무한한 터전이 되겠습니다.”하였다. | 丙辰/召見大臣 丶閣臣 丶卿宰于景春殿, 以元孫誕辰初度也 。 諸臣環瞻睿表, 相賀曰: “岐嶷之姿, 迥出尋常, 實吾東億萬無疆之基 。” |
| 순조 30권, 28년(1828 무자 / 청 도광(道光) 8년) 7월 20일(무오) | 왕세자가 원손의 돌을 기념하는 응제(應製)를 춘당대에서 시행하여, 거수를 한 안윤시(安潤蓍)와 지차(之次)를 한 이공익(李公翼)을 모두 직부 전시하게 하였다. | 戊午/王世子, 行元孫初度應製于春塘臺, 居首安潤蓍, 之次李公翼, 幷直赴殿試 。 |
| 고종 12권, 12년(1875 을해 / 청 광서(光緖) 1년) 2월 8일(병자) | “오늘은 세자궁의 돌입니다. 생각건대 성상의 한가득 기쁜 마음과 자성(慈聖)의 기쁨이 참으로 어떠하겠습니까? 경사를 축하하는 아랫사람들의 마음은 지난해보다 더욱 기쁩니다.” | “今日卽世子宮初度也 。 伏想聖心欣滿, 而慈聖嘉悅, 尤當何如哉? 下情慶祝, 猶有加於昨年矣 |
| 고종 12권, 12년(1875 을해 / 청 광서(光緖) 1년) 2월 8일(병자) | 전교하기를, “오늘이 바로 세자궁의 돌이다. 자성(慈聖)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본 받아 기쁨을 표시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며, 온 나라가 경사를 함께하는 날이니 수선(首善 : 성균관)에 뜻을 보여주는 조치가 없어서는 안 되겠다. 내일 응제(應製)는 방외(方外)를 통틀어 보이고 춘당대(春塘臺)에 친림(親臨)하는 것으로 마련(磨鍊)하라.” | 敎曰: “今日卽世子宮初度也 。 仰體慈聖嘉悅之意, 宜有飾喜 。 而擧國同慶之日, 不可無示意於首善之地 。 明日應製, 通方外爲之 。 春塘臺親臨磨鍊 。” |
| 고종 12권, 12년(1875 을해 / 청 광서(光緖) 1년) 2월 12일(경진) | 돌이 이미 지나갔으니 경으로서도 간절한 심정은 다른 사람보다 곱절 더할 것이고 세자로 책례(冊禮)를 거행하는 날도 가까워졌으니, 온 나라가 함께 기뻐하는 이때에 간절하게 기다리는 나나 우러러 축원하는 경의 마음은 또한 어떠하겠는가? | 初度已過, 在卿延頸之忱, 自倍餘人, 而冊禮涓吉, 又載邇 。 値此擧國同慶之會, 予之凝佇翹誦, 卿之愛戴蘄祝, 尤當如何? |

(최배영·최경희·이경란, 2010), 이는 조선왕조실록에도 언급되어 있다. 정조 실록에는 원자의 돌에 돌상을 차리고 돌잡이를 하며, 돌떡을 답례로 신하들에게 돌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문건의 [양아록]에 손자를 위한 돌 의례를 행했다는 기록도 있는 것으로 보아 궁이나 일반 민가에서도 행해졌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이러나 이시기에 이미 민간에 보편화되어 널리 행해졌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단언할 수 없다(조희진,1999)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돌 의례를 찾아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조시기부터 고종시기에 이르기까지 9건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왕조실록 기록 외에 그림을 통해서도 돌 의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김홍도의 평생도를 꼽을 수 있다. 평생도에서는 1700년대의 돌 의례에 대한 일면을 잘 보여준다. 즉 그림에는 돌을 맞이한 아기가 색동의 돌복을 입고 붉은색 보를 씌운 원반위에 있는 돌잡이 용구를 잡고 있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 평생도는 당시의 돌 의례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기도 하다.

〈그림 1〉 김홍도의 평생도

돌 의례가 한국의 관습이자 생활문화로서 오늘날과 같은 형식으로 자리 매김 되기 시작한 것은 어떤 연유인가를 살펴보면, 실록 등 역사적인 기록에 근거하여 돌 의례는 돌을 맞이한 아기를 위해 축하해주는 의례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왜 돌 의례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을까를 학자들은 추론해 왔다. 이에 대한 견해로 유안진(1986)은 과거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시기에 영아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일정한 성장 발육의 시점마다 성장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위험 고비를 무사히 넘긴 아기에게 적절한 아기 행사로서 축하의 잔치를 마련해 주곤 했는데, 그것이 곧 삼칠일, 백일, 돌과 같은 것이었다고 하였고, 따라서 돌 의례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이 습성화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당시의 의학과 과학기술의 발달 수준에서 출산은 생명과 관련된 가장 어려운 의례이며, 출생 후 1년간의 시간은 아기의 생명에 대해 보장할 수 없는 각종 질병에 노출되는 시기였기 때문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로 그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1930년대, 40년대에 이르러서도 민간에서 돌 의례를 해준 예는 흔하지 않았고, 산업화가 가속화되던 1970년대에도 집안형편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잔치를 하지 않았으며, 조금 형편이 나은 집안에서는 사진을 찍는 것으로 대신한 예도 있다.(조희진, 1999) [한국민속대관]권1에서는 현재 조사 보고된 바에 의하면 돌잔치 풍속은 경제적 이유에 따라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곳도 많으며, 돌잔치를 한다 하더라도 서울 경기지방과 같이 의미 있게 행하지 아니하는 곳도 있다고 하여 첫돌의례가 모든 가정에서 치러졌다고 추론할 수 없음이 지적되기도 하였다(조희진, 1999).

돌 의례가 오늘날과 같이 정착된 시기는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영아사망률이 높은 연유에서부터 행해졌을 것이라는 주장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연유에서 시작되었다고 가정해도 오늘날에는 영아사망률이 줄어들었지만, 대부분 해야만 하는 통과의례로 돌잔치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고자 하는 경향을 볼 수 있으

므로, 이에 대한 인식 및 형식변화, 의례의 사회화현상 등을 또 다른 각도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신문기사에 나타난 돌잔치에 대한 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찾을 수 있었다. '소련속의 고려인을 찾아서' 라는 동아일보(1989.10.13.17면) 기사이다. 고려인들의 생활풍속에서는 백일과 돌잔치, 환갑잔치가 가장 큰 잔치로 여겨지고 있다고 하였다.

> '백일 돌잔치의 경우 금반지나 은수저 대신 현금기부가 행해지고 있었다. 돌잔치 때는 돌상을 차려놓고 돌백이가 「무슨 물건을 맨 처음 집는가」를 알아보는 풍습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모스크바에서 만난 蘇 인민대표회의 대의원 조발리시 이바노비치씨(38)는 우리말은 거의 못하면서도 「환갑 백일 돌잔치는 꼭 지킨다」고 말했다'

라는 기록도 돌 의례의 전승을 엿볼 수 있다. 민하영과 유안진(2004)은 전통적인 출생의례와 아기행사가 1960년대를 거쳐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내용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측면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전승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한국과 미국 홍콩의 출생의례와 아기 행사 풍속의 문화 간 비교를 통해서 밝힌 바, 첫 생일날 돌잡이를 하거나 돌 음식을 이웃에 돌리는 것은 홍콩과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적 관습이며, 첫돌선물로 돈이나 금, 저금통장등 금전적인 선물을 받는 것은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특성임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돌 의례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고, 현대의 라이프스타일 등 사회문화적 요인의 변화와 맞물려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생활문화로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한자녀가정이 보편화되었고, 특히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매우 높아져서 '하나뿐인 내 자식을 최고로 키우겠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 한편 현행 돌 의례는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형식에서 벗어나, 대부분 서구의 파티형식과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2000년을 전후하여 돌이벤트 업체가 등장하면서 가정의례인 '돌'이 가족이벤트의 형식으로 회자되고, 사회의 다양한 외적 변화요인의 영향으로 이른 바 '돌이벤트'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가정형성기에 이루어지는 생활문화로 정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돌잔치가 한국의 관습적인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형성되고 있는 것은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각종 정보 취득이 용이해지고, 해외여행의 자유화, 해외유학 기회의 확대로 인한 서구 파티문화의 친숙함 확산, 개성화 다양화 고급화되어가는 삶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과 무관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오늘날 돌 의례는 아기만을 위한 의례가 아니라, 아기를 중심으로 하되 가족과 친지, 부모의 직장동료들과의 새로운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자하는 의례이자 가족행사로 자리 매김 되고 있으며, 더욱이 돌잔치 또는 돌이벤트업체라 불리는 업체를 중심으로 점차 사회화, 상품화, 다양화, 고급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 3. 돌 의례의 구성요소

### 1) 돌복

예로부터 아기는 출생 후, 배내저고리, 두렁이, 바지, 저고리 등을 입고 성장하나, 돌이 되면, 색동옷을 입고, 돌맞이를 했다. 이광수의 [芝峯類說] 조선 권 17 人事部에 돌이 되면 새 옷을 입히는 풍속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색동으로 만들어지는 돌복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상으로 액을 피하려는 뜻과 동시에 아기의 색감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기도 하였으며, 천 조각을 색동으로 모아 바느질하여 만듦으로써 아기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와 더불어 천의 재활용적인 의미도 담겨 있었다. 남아의 경우는 보라색이나 회색 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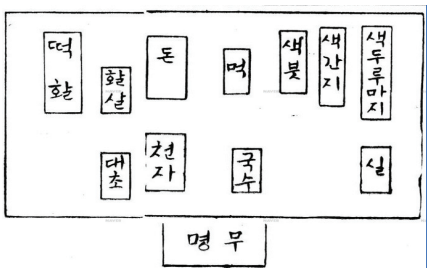
차바지에 분홍 또는 색동저고리에 남색조끼, 색동마고자를 입고, 그 위에 색동두루마기(일명까치두루마기라고도 함) 또는 오방장을 입고, 그 위에 전복을 입고 홍사대를 두른 후 복건이나 호건을 쓴다, 그리고 타래버선을 신고 염낭을 차게 한다. 여아의 경우는 빨강치마에 노랑저고리를, 그리고 그 위에 색동두루마기를 입고, 쓰개와 돌띠를 하고, 타래버선을 신는다. 1970년대의 [한국민속종합보고서]의 수집사례에서는 돌복도 지역적, 가정적 개인적 요인들이 작용했었음을 알 수 있는데, 뚜렷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나 '저고리와 바지' '저고리와 치마'라는 기본복식에 다양한 복식과 장식들이 부가되고, 변형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조희진,1999)는 지적도 있다. 또한 시대별로 돌복 착용의 변화 양상도 볼 수 있는데 1960년대에는 대부분 집에서 제작하였으며, 일부 구입을 하였지만, 1970년대 이후 돌복을 사서 입히는 것이 보편화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기성복 생산의 보편화와도 관련되어 있다. 1973년 매일경제신문(1973.9.25, 8면) 사회면 기사에는 돌복 구매를 비롯한 각종 아동복 구매에 관한 비용과 구매 장소 등이 명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아기 돌복 대여(경향신문,1984, 1,4 7면, 생활문화)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돌복으로 여아의 드레스와 남아의 정장차림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돌복 한 벌에 40만원을 하지만, 돌잔치와 사진촬영 때 입힐 고급스런 드레스와 정장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하는 고객이 많아 특별히 돌복을 제작하는 경우(한국경제, 2003.10.7)도 있어, 변화하고 있는 돌복 착용의 일면을 볼 수 있다.

### 2) 돌상과 돌잡이

대부분 돌에는 아기에게 돌상을 차려주고, 돌잡이를 하며, 하객들을 초대하여 축하연을 베푼다. 돌상의 형태는 소원반을 쓰고, 이와 같은 크기의 붉은 칠을 한 상은 궁정 예식용 요리상에 사용되었고 하며, 돌잔치 상을 돌상 또는 回床이라고 부른다(안호숙,2004). 돌상에는 일반적으로 백설기와 수수경단, 무명실, 국수, 쌀, 돈, 대추, 종이, 붓, 책, 등을 올려놓는다. 그리고 남아 돌상에는 활과 화살을 여아 돌상에는 자, 실 등을 올려놓는다, 백설기는 아기의 신성함과 정결하기를 기원하고, 장수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수수경단은 액을 물리친다는 의미를, 인절미는 끈기 있고 마음이 단단 하라는 뜻으로, 송편은 속이 차고, 영리하라는 뜻으로, 오색 떡은 아기의 꿈이 오색찬란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차려주었고, 과거 궁중에서는 민가에서와는 다르게 미나리 한 다발을 홍실로 묶어 놓기도 하였다.(이길표,1998) 이러한 돌상차림은 무병장수, 자손번성, 학문의 뛰어남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특히 남아에게는 용감과 무예 익히기를 기원하기, 여아에게는 바느질에 능하기를 담고 있다.

돌상에 대한 신문기록을 보면, 동아일보(1938.3.19.3면)에 조자호씨의 글이 보인다.

> '남아돌상- 큰팔모판이나 보통모판에 다음에 말슴하는 여러 가지를 차려서 교자상 같은데 올려노코 어린애는 방석우에 무명한필 까러 안칩니다. 쌀,돈,천자문,활,활살,핵간지,색두루마기,색붓,국수,대초,무명실과,명주실,먹,떡, 이상여러가지를 그림에 보이는대로 위치를 노십시오. 여아돌상-여아돌상도 남아돌상과 같은데 그중에 천자와 활이 없고 반절자, 가위자가 노입니다. 그리고 아침상은 내일 말씀할 생일차림과 같은데, 곰국만 빼고 미역국입니다. 점심상도 점잔은 손니을 청해서 잘 차리려면 어른생일차림과 거이 같게 차립니다. 떡가지 수효는 보통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힌무리, 콩버무리,콩찰떡,수수경단,찰경단,송편,꿀떡,팟게피해서찰떡,메떡,녹두게피한찰떡과메떡을 합니다. 이중에서 몇가지 빠져도 조흐나 가지수를 짝맞게는 아니하는 법입니다.'




〈그림 2〉 동아일보
(1938. 3.19. 3면 사회)

돌잡이는 조선민속학회의 [朝鮮民俗] 1940년 간에 기록된 바, "...이날은 돌잡힌다고 하여 처음 탄생일을 축하한다. 아이를 座布團이나 綿布一匹을 접어 앉힌다. 그리고 남아 같으면 쌀 활 책(천자문), 붓, 卷紙(두루마기), 絲, 麵, 芹, 돈 등을 올려놓으며, 이때 떡을 함께 놓는다. 여아 같으면 쌀, 反切筆, 먹, 종이, 絲, 麵類, 芹, 錢, 尺, 鋏, 斗, 針, 色이 있는 떡 등을 올려놓는다. 아이로 하여금 마음대로 잡게 하여 먼저 잡는 것과 다음 잡는 것을 가장 중하게 여긴다"고 한 바 있다.(조선민속학회, 1940, 안호숙, 2004 재인용)

男性코너
아들의 첫돌맞이
李蓉柱

〈그림 3〉 동아일보
(1964.7.28 6면 사회)

1964년도 동아일보에 제시된 [남성코너]의 기고에는 아들의 돌잔치를 준비하는 부부의 심정을 보여준 글이 있다. 돌상을 차려야하고, 돌복, 돌사진 찍기 등의 의례를 준비해온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으며, 당시 보편적으로 아기의 돌 의례가 치러져 왔음을 보여주는 바라 할 것이다. 1984년 매일경제신문(1984. 5.30 9면, 사회)에는 뿌리내리는 연회행업기사가 실려, 돌, 약혼식 등 각종 모임의 접대를 일괄준비해주는 전문 업체와 단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생활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돌상과 돌잡이의 관습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에 관한 많은 연구를 찾기는 힘드나, 1999년의 한 연구인 재미 한인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의례음식과 상차림에 관한 연구(심영자,김정선,전희정, 1999)에서는 30대,40대의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주부들의 경우 돌상차림(백설기, 수수팥떡, 쌀, 국수, 과실, 종이, 붓과 먹, 실, 활 돈 등)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바도 있다.

## 4. 돌 의례 관련 선행연구

돌 의례 연구로는 생활과학 분야에서의 연구(이길표, 1998; 조희진, 1999; 이온표, 2003; 조희진, 박찬옥, 2010)와 관관경영 및 호텔경영분야에서의 연구(김희경, 2005; 김정희, 2009; 임종송, 2010; 박상현, 2010), 민속학적 분야의 연구(주영하, 2003)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돌 의례의 변화를 어떻게 수용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 각 분야의 연구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생활과학 분야 연구에서는 돌 의례를 생활문화의 하나로 파악하며, 동시대문화를 전제로 그 전개 과정을 사회변화와 함께 분석하고, 유지 계승 발전될 수 있는 생활문화의 단서를 제안하고 있다. 관광경영 및 호텔경영분야에서는 사회화 되어 가는 돌의례의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실용적이고 활용 가능한 제안을 하고 있다. 한편 민속학적 연

구에서는 생활과학 분야의 접근과 유사하게 돌 의례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재고하고 있다.

조희진(1999)의 연구에서는 돌의례의 역사에 대하여 기술하면서 그 기원은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오래된 것으로 보이며, 영아사망률이 의례수행의 절대적 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요소로 파악하였다. 또한 돌복식은 지역적 가정적 개인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돌복식은 의례의 변화과정 및 그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의해 달라지고, 시대적 조류에 맞는 복식요소로 교체된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한편 돌 의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새롭게 시도한 이온표의 연구(2003)에서는 돌잔치는 필요한 의례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돌잔치보다는 돌잡히기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돌잔치라는 외형적인 행사보다 돌잡히기라는 가족적 의례를 중요시하고 있는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의식은 조사대상자의 종교와 아이의 연령, 출생순위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복 마련에서는 어머니 연령이 낮을수록, 수입이 낮을수록 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돌떡 돌리기, 덕담과 선물하기, 돌상 차리기, 등의 의미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50%이상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아 돌복의 종류에 대한 인식은 어머니의 연령, 학력, 종교,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맞이에 대한 이해는 주로 어머니의 변인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조희진·박찬옥(2010)은 출생의례에서 돌, 백일, 태교는 가장 중요한 출생의례라고 하면서, 돌 의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대체로 긍정적이었고, 돌은 아기의 무병장수와 축복의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로 인식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과 문화 그리고 교육적 측면을 부각하여 문화적 창의력과 감수성을 배양하고자 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출생의례의 형식과 절차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주영하(2003)의 연구에서는 돌잔치를 하는 부모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1960년대까지 돌 선물은 쌀과 실타래였지만, 금반지와 옷으로 변했고, 1980년대에는 반지 팔찌 현금 옷이 주류를 이루어 한국사회가 보여준 가치재(valuables)에 대한 인식변화를 설명해준다고 지적하였다. 1980년대 이후 돌이 백일보다 중요시되고 있으나 백설기 인절미 수수팥떡을 마련하는 일은 시대와 관계없이 지켜지고 있다고 하였다. 돌잔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으며, 뷔페식당이 돌잔치를 하는 가장 일반적인 장소가 되었다고 하였다.

박상현(2010)은 돌잔치 선택속성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므로 앞으로 돌잔치 업계에서는 관리, 홍보 마케팅, 고객상담 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첫째아이의 돌잔치나 아들의 돌잔치의 선택에 대해 좀 더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이므로,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임종송(2010)은 관광축제활성화의 관점에서 돌 의례를 연구하였다. 가족파티로서의 돌이벤트는 새로운 발전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보고, 돌이벤트를 중심으로 한 파티문화 활성화를 기대하였다. 그는 돌이벤트 진행방식의 추세는 가족위주의 소규모 행사로 돌잔치의 형태가 변화하여도 흥미와 오락성은 포함되어야 하며, 돌잔치 제공음식은 상설 뷔페를 선호하는 바가 전 연령 집단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넓은 뷔페 홀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고 하였다. 또한 행사장소의 넓은 주차공간에 대한 선호는 가장 높게 나타나, 대다수 방문객이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행사장을 방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행사장소의 선택 시 꼭 고려해야할 사항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를 보면, 돌 의례에 대한 용어도 '돌잔치', '돌이벤트', '돌맞이', '돌 파티' 등 다양하

게 사용하고 있어, 연구자의 학문적 관점에 따라 용어의 재정의가 필요함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돌 의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며, 돌 의례의 사회화 현상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단, 지나친 상업주의에 대한 지양, 변화하는 사회화 현상에 따른 트렌드 파악, 그리고 돌 의례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 등이 지적된 바를 볼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전통사회로부터 이어져 현재 가정에서 생활문화로 자리매김 되어 지켜오고 있는 돌 의례문화를 재고해 봄과 동시에 이를 토대로 현시점에서 점차 사회화되어가고 있는 돌 의례문화 변화현상 및 그에 따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아래와 같이 4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어머니들의 돌 의례 준비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와 돌 의례 전문가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둘째, 어머니들의 돌 의례에 대한 인식과 지식은 어떠한가?

셋째, 어머니들의 돌 의례에 대한 인식과 지식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넷째, 어머니들의 돌 의례 구성요소의 중요도와 돌 의례 상품 선택의 중요도는 어떠하며, 어떤 관계가 있는가?

###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관련 문헌과 자료를 고찰하고 선행연구(이온표, 2003; 김희경, 2005; 김정희, 2009; 박상현, 2010; 임종송, 2010)의 질문지를 참고하여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한 질문지로 재구성하였다. 2012년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의례관련 산업체 실무자 1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내용검토와 타당성을 점검 후, 수정 보완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자녀 수) 5문항과 돌 의례에 대한 인식 8문항, 돌 의례에 대한 지식 5문항, 돌의례 구성요소(돌상차림, 돌잔치, 돌복, 하객답례품, 돌잔치 공간, 돌잔치기념사진, 돌잔치음식, 돌잔치장소)의 중요도 8문항, 돌잔치 연회장소선정의 중요도 5문항, 돌잔치 담당직원 서비스의 중요도 6문항, 돌잔치 상품 계약 및 가격중요도 5문항, 돌잔치 하객음식의 중요도 4문항, 돌 의례 준비에 대한 견해 13문항, 돌 의례수행을 위한 전문가 의뢰에 대한 견해 5문항을 포함해서 총 6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돌 의례에 대한 인식, 지식, 돌잔치 구성요소 중요도, 돌잔치 연회장소선정의 중요도, 돌잔치 담당직원 서비스의 중요도, 돌잔치 상품 계약 및 가격 중요도, 돌

〈표 2〉 각 문항의 신뢰도 검증

| 문항분류 | Cronbach's $\alpha$ | 문항수 |
|---|---|---|
| 돌 의례에 대한 인식 | 0.775 | 8 |
| 돌 의례에 대한 지식 | 0.838 | 5 |
| 돌잔치 구성요소의 중요도 | 0.849 | 8 |
| 돌잔치 연회장소선정의 중요도 | 0.782 | 5 |
| 돌잔치 담당직원 서비스의 중요도 | 0.892 | 6 |
| 돌잔치 상품 계약 및 가격 중요도 | 0.913 | 5 |
| 돌잔치 하객음식의 중요도 | 0.873 | 4 |

잔치 하객음식의 중요도 측정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의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 3. 자료수집 및 자료처리

조사는 2012년 10월 11일부터 11월 6일까지 서울 소재 어린이집원아 어머니, 일반기업체직원, 문화센터어린이강좌 이용고객 어머니 등 자녀의 돌 의례를 준비하는 어머니 총 2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부실 기재된 설문을 제외한 250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돌 의례에 대한 이해는 어머니의 변인과 관련이 높다(이온표,2003)는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 대상을 돌 의례 준비를 하는 어머니로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사항은 <표 3>과 같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7.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F-test, 상관관계분석 등을 적용 전산처리하였다.

### 4. 용어의 정의

1) 돌 의례 : 의례는 어떤 행사를 치르는 법식이나 정해진 방식에 따라 치르는 행사(Daum 어학사전)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돌을 맞아 차리는 잔치를 '돌잔치'라고 일컬으나, 생활과학분야(조희진, 1999; 조희진, 박찬옥; 2010; 최배영·최경희·이경란, 2010)의 가정의례연구에서 적용되어온 학문적인 용어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돌 의례' 용어란 자녀의 돌을 기념하여 돌복과 돌상준비, 돌잡이, 돌 의례 하객들 접대 등을 포함하여 진행하는 의례를 총칭하고자 한다.

2) 돌 의례 인식 : 돌 의미와 돌잔치를 알림, 돌상을 차림, 돌잡이를 함, 돌잡이용구의 의미가 있음, 돌잔치 축하를 함, 하객에 대한 답례를 하는 등과 관련하여 분별하고 판단하는 인식정도를 의미한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N=250)

| 구분 | | N | % |
|---|---|---|---|
| 연령 | 20~29세 | 36 | 14.4 |
| | 30~39세 | 175 | 70.0 |
| | 40세 이상 | 39 | 15.6 |
| 학력 | 고졸이하 | 32 | 12.8 |
| | 대졸 | 185 | 74.0 |
| | 대학원졸이상 | 33 | 13.2 |
| 가정경제 수준 | 중하층 이하 | 71 | 28.4 |
| | 중층 | 139 | 55.6 |
| | 중상층 이상 | 40 | 16.0 |
| 직업활동 형태 | full-time job | 159 | 63.6 |
| | part-time job | 35 | 14.0 |
| | 전업주부 | 56 | 22.4 |
| 자녀수 | 없음 | 31 | 12.4 |
| | 1명 | 115 | 46.0 |
| | 2명 | 90 | 36.0 |
| | 3명 | 14 | 5.6 |

3) 돌 의례 지식 : 돌잡이 용구의 의미, 돌상차림 떡의 의미, 돌복의 명칭과 의미, 돌의례 역사와 유래, 돌 의례의 의미와 형식 등에 관하여 알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4) 돌 의례 상품 : 돌 의례를 진행하기 위한 연회장소 선정, 담당직원 서비스, 계약 및 가격, 하객음식 등을 칭한다.

### 5.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돌 의례를 준비하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snow ball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대상의 표본수가 제한되어 있고, 조사대상의 거주 지역도 서울 및 수도권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확대해석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 Ⅳ. 결과 및 분석

### 1. 어머니들의 돌 의례 준비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어머니들의 돌 의례 준비에 대한 견해는 <표 4>와 <표 5>에 제시하였다. 돌 의례 주관 경험 유무를 비롯하여, 돌 의례 희망 장소, 돌 의례 포함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어머니들의 돌 의례 주관경험은 있는 경우가 66.0%였다. 돌 의례 희망 장소로는 돌의례 전문 뷔페(61.2%)를 가장 선호하고 있었고, 호텔연회장(22.0%), 가정에서 직접상차림(8.0%)을 원하는 순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조희진,박찬옥,2010; 임종송,2010; 박상현,2010)와 유사하게 대부분 연회장소를 이용하여 돌 의례를 하고자 함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돌잡이 물건은 집에 있는 물건(39.3%)으로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28.6%), 또는 돌 의례 전문업체에서 대여(21.4%)하여 준비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임종송,2010)에서도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만든 소품으로 구성된 돌잔치나 화려한 분위기 연출을 위해 소품위주로 장식된 돌상에 대해서는 낮은 선호를 보인 반면 부모가 직접 만든 소품으로 된 돌상차림과 행사준비를 선호하는 바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돌 의례 손님초대범위로는 가족, 친척, 친구, 직장동료(49.2%)의 범위까지 초대하고자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가족과 친척, 친구(29.6%) 범위, 가족과 친척(17.2%)범위 등의 순으로 나타나, 돌 의례는 가족 이외에 친척, 친구, 직장동료까지 초대하는 범위가 50% 가까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주영하(2003)는 도시화를 통해서 공간적으로 분산된 친척집단은 오히려 백일잔치와 돌잔치를 통해서 실질적인 접촉의 기회를 강화한다는 점을 현지연구과정에서 발견하기도 한바, 본 결과는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돌 의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참여자를 위한 식사대접(21.7%), 돌잡이행사(18.2%), 사진 및 비디오 촬영(16.4%), 참석자에 대한 답례(14.2%), 아기를 위한 축하메시지와 선물증정(12.4%)등이 10%이상을 상회하여 정례화되어 진행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돌상의 형태는 전통+현대식 돌상(58.8%)을 가장 선호하며, 전통식돌상(23.6%), 외국 파티식 돌상(15.2%)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돌 의례에서는 전통의례의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돌잡이 용구는 전통적+현대적 용구(56.8%), 현대적 돌잡이용구(20.8%), 전통적 돌잡이용구(18.4%)로 나타나, 돌상의 선호와는 다소차이를 보인다. 돌잡이용구는 앞으로 아이가 성장하면서 갖게 될 직업이나, 특성들을 잘 표현해 주기를 바라는 오늘날 부모

들의 소망을 담아 표현된 것이라 사료된다. 돌복도 돌상의 형태선호와 유사하게 전통한복인 아기 돌복 일체와 현대 파티복 형식(36.0%)을 가장 선호하며, 전통한복인 아기 돌복 일체(33.6%), 현대 파티복형식인 드레스나 턱시도형태(19.6%)등을 선호하는 순으로 나타났다. 돌복을 구매하는 장소로는 인터넷구매(41.6%)를 가장 선호하였고, 이외에 백화점(26.8%)이나 전통시장(10.4%)에서 구매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 의례에 참석한 하객들에게는 답례품으로 실용적인 생활용품(68.8%)을 선물하려는 경우가 가장 많아 선행연구(임종송,2010)에서 실용성이 강조된 답례품(컵, 타월, 비누 등)을 가장 선호한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돌떡(18.8%), 직접 만든 기념품(7.6%)의 순으로 나타나났다. 그리고 돌 의례 선물로 받기를 희망하는 것은 주로 금반지

〈표 4〉 돌 의례 준비에 대한 견해 1

| 구분 | | N | % |
|---|---|---|---|
| 돌 의례 주관 경험(N=250) | 있다 | 165 | 66.0 |
| | 없다 | 85 | 34.0 |
| 돌 의례 희망 장소 (N=250) | 호텔 연회장 | 55 | 22.0 |
| | 돌잔치 전문 뷔페 | 153 | 61.2 |
| | 가정에서 출장 부페 | 8 | 3.2 |
| | 가정에서 직접 상 차려 주기 | 20 | 8.0 |
| | 일반 음식점 | 6 | 2.4 |
| | 기타 | 8 | 3.2 |
| 돌잡이물건 (N=28) | 집에 있는 물건으로 | 11 | 39.3 |
| | 돌잔치 전문 업체에서 대여 | 6 | 21.4 |
| | 인터넷을 통해 구입 | 8 | 28.6 |
| | 돌잔치 전문 업체에서 구입 | 2 | 7.1 |
| | 지인의 돌잔치 물건을 대여 | 1 | 3.6 |
| 손님초대 범위 (N=250) | 가족 | 9 | 3.6 |
| | 가족과 친척 | 43 | 17.2 |
| | 가족과 친척, 친구 | 74 | 29.6 |
| | 가족, 친척, 친구, 직장동료 | 123 | 49.2 |
| | 기타 | 1 | 0.4 |
| 돌 의례 포함내용 (중복응답 N=1,905) | 참석자를 위한 식사 | 216 | 21.7 |
| | 돌잡이행사 | 181 | 18.2 |
| | 특색 있는 이벤트 | 83 | 8.4 |
| | 사진 및 비디오촬영 | 163 | 16.4 |
| | 아기를 위한 축하메시지와 선물증정 | 123 | 12.4 |
| | 새로 준비한 돌복 입히기 | 66 | 6.6 |
| | 화려한 돌잔치 장소연출 | 21 | 2.1 |
| | 참석자에 대한 답례 | 141 | 14.2 |

〈표 5〉 돌 의례 준비에 대한 견해2

(N=250)

| 구분 | | N | % |
|---|---|---|---|
| 돌상 형태 | 전통식돌상 | 59 | 23.6 |
| | 외국 파티식 돌상 | 38 | 15.2 |
| | 전통+현대식 돌상 | 147 | 58.8 |
| | 기타 | 6 | 2.4 |
| 돌잡이 용구 | 전통적인 돌잡이용구 | 46 | 18.4 |
| | 현대적 돌잡이용구 | 52 | 20.8 |
| | 전통적+현대식용구 | 142 | 56.8 |
| | 기타 | 10 | 4.0 |
| 돌복 형태 | 전통한복인 아기 돌복 일체 | 84 | 33.6 |
| | 현대 파티복 형식 (드레스, 턱시도 등) | 49 | 19.6 |
| | 전통한복인 아기돌복 일체와 현대파티복 형식 | 90 | 36.0 |
| | 형식에 맞지 않아도 아기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 | 23 | 9.2 |
| | 기타 | 4 | 1.6 |
| 돌복 구매 장소 | 백화점 | 67 | 26.8 |
| | 할인마트 | 21 | 8.4 |
| | 전통시장 | 26 | 10.4 |
| | 인터넷 | 104 | 41.6 |
| | 직접 만들기 | 9 | 3.6 |
| | 기타 | 23 | 9.2 |
| 답례품 | 돌떡 | 47 | 18.8 |
| | CAKE | 4 | 1.6 |
| | 실용적인 생활용품 | 172 | 68.8 |
| | 직접 만든 기념품 | 19 | 7.6 |
| | 기타 | 8 | 3.2 |
| 희망하는 돌 의례 선물 | 돈 | 80 | 32.0 |
| | 아기 이름의 통장 | 24 | 9.6 |
| | 금반지 | 117 | 46.8 |
| | 아기 옷 | 8 | 3.2 |
| | 아기 장난감 | 2 | 0.8 |
| | 아기 책 | 3 | 1.2 |
| | 기타 | 16 | 6.4 |
| 돌 의례 예상비용 | 100만원 미만 | 23 | 9.2 |
| | 100만원 ~ 200만원 미만 | 67 | 26.8 |
| | 200만원 ~ 300만원 미만 | 65 | 26.0 |
| | 300만원 ~ 400만원 미만 | 56 | 22.4 |
| | 400만원 ~ 500만원 미만 | 28 | 11.2 |
| | 500만원 이상 | 11 | 4.4 |
| 돌 의례 정보습득경로 |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 134 | 53.6 |
| | 다른 가정의 돌잔치 참여를 통해서 | 19 | 7.6 |
| | 경험자(부모, 친지, 친구 등)의 조언 | 74 | 29.6 |
| | TV, 신문 등 광고 | 2 | 0.8 |
| | 책 | 2 | 0.8 |
| | 기타 | 19 | 7.6 |

〈표 6〉 돌 의례 수행을 위한 전문가 의뢰에 대한 견해

| 구분 | | N | % |
|---|---|---|---|
| 돌 의례 전문가의뢰 (N=250) | 반드시 의뢰해 보고 싶다 | 21 | 8.4 |
| | 의뢰해보고 싶다 | 104 | 41.6 |
| |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다 | 87 | 34.8 |
| | 의뢰할 생각이 없다 | 29 | 11.6 |
| | 전혀 의뢰할 생각이 없다 | 9 | 3.6 |
| 전문가 컨설팅비용 지불 수준 (N=250) | 50만원 미만 | 154 | 61.6 |
| | 50만원 ~ 100만원 미만 | 72 | 28.8 |
| | 100만원 ~ 150만원 미만 | 14 | 5.6 |
| | 150만원 ~ 200만원 미만 | 6 | 2.4 |
| | 200만원 이상 | 4 | 1.6 |
| 돌 의례 전문가에게 기대하는 서비스 (N=250) | 기존의 돌잔치와는 다른 '내 아이만을 위한' 차별화된 이벤트 | 120 | 48.0 |
| | 전통성있고 품격 있는 돌잔치 행사 진행 | 33 | 13.2 |
| | 돌잔치 장소의 특별한 데코레이션 | 4 | 1.6 |
| | 돌잔치 축하 하객들에게 주는 새로운 감동연출 | 23 | 9.2 |
| | 놓치지 쉬운 돌잔치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철저한 사전준비와 시행 및 사후관리 | 70 | 28.0 |
| 돌 의례 전문가 의뢰 수요 전망 (N=250) | 크게 증가할 것이다 | 32 | 12.8 |
| |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123 | 49.2 |
| | 보통이다 | 75 | 30.0 |
| |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 19 | 7.6 |
| | 전혀 증가하지 못할 것이다 | 1 | 0.4 |
| 돌 의례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질 (중복응답 N=987) | 전문지식을 갖춘 프로의식 | 164 | 16.6 |
| | 신뢰성 | 136 | 13.8 |
| | 창의성 | 102 | 10.3 |
| | 친절한 응대와 표현력 | 131 | 13.3 |
| | 뛰어난 정보력 | 82 | 8.3 |
| | 문제해결과 대처능력 | 98 | 9.9 |
| | 고객에 대한 이해와 배려 | 153 | 15.5 |
| | 적극성 | 67 | 6.8 |
| | 단정하고 호감 가는 외모 | 54 | 5.5 |

(46.8%), 돈(32.0%)으로 75%이상이 편중되어 있었다. 돌 의례 예상비용으로는 100만원~200만원 미만(26.8%), 200만원~300만원(26.0%), 300만원~400만원(22.4%)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00~300만원 범위를 희망하는 경우가 52.8%로, 선행연구(박상현, 2010)에서 200만원~400만원 정도로 돌잔치지출액을 선호하는 바가 80%가 넘게 나타난 바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돌 의례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로는 주로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53.6%)를 통해서 얻고 있으며, 부모나 친지 친

구 등 돌 의례 경험자의 조언(29.6%)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송종 연구(2010)에서는 경험자의 조언(52.1%), 인터넷 카페(26.2%), 관련업체 홈페이지방문(12.0%)등의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즉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관련정보 습득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바라 하겠다.

한편 <표 6>에 나타나 있듯이 돌 의례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해보고 싶다(41.6%)는 의견과 반드시 의뢰해 보고 싶다(8.4%)는 경우를 보면, 50%정도 전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에게 의뢰할 경우 컨설팅비용 지불수준으로는 50만원미만(61.6%), 또는 50만원~100만원미만(28.8%)로 나타났다. 전문가에게 기대하는 서비스로는 기존과는 다른 '내 아이만을 위한' 차별화된 이벤트(48.0%)를 위해서 또는 놓치기 쉬운 세부적인 사항까지 철저한 사전준비와 시행 및 사후관리(28.0%)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정(2002)의 연구에서도 고객들은 전문적 지식과 태도를 갖춘 인적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볼 때, 돌 의례 전문가 의뢰 수요에 대해서는 증가 가능성이 있거나(49.2%), 크게 증가할 것(12.8%)이라는 견해가 60%를 상회하여, 앞으로 돌 의례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돌 의례 전문가에게는 전문지식을 갖춘 프로의식(16.6%)과 고객에 대한 이해와 배려(15.5%), 신뢰성(13.8%), 친절한 응대와 표현력(13.3%) 등의 자질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어머니들의 돌 의례에 대한 인식과 지식

어머니들이 돌 의례를 수행하는 이유로는 <표 7>에 제시하였듯이 아기가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의미(28.7%)와 아기가 잘 자랐음을 친척과 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26.3%), 아기의 삶에 중요한 추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21.0%) 축하연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예로부터 돌이 갖는 의미를 오늘날에도 이어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라 하겠다. 조희진,박찬옥(2010)의 연구에서도 돌 의례의 필요이유로 아기의 무병장수와 축복의 의미가 담겨있는 절차이므로 필요하다고 한 결과를 보인 바 있다.

돌 의례에 대한 인식은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5점 만점에 3.58로 중간점수를 상회하는 의식을 갖고 있다. 이는 예로부터 지켜왔던 돌 의례에 대한 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돌잔치를 축하해 주신 분께 답례해야한다는 점(4.02)과 돌잡이 용구의

〈표 7〉 돌 의례 수행 이유 (중복응답)

| | 항목 | N | % |
|---|---|---|---|
| 1 | 아기가잘자랐음을친척과지인들에게보여주기위해 | 133 | 26.3 |
| 2 | 아기가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 145 | 28.7 |
| 3 | 일생에 필요한 공식적인 의례이므로 | 28 | 5.5 |
| 4 | 부모로서 아기를 위해 해주어야 할 책임이므로 | 42 | 8.3 |
| 5 | 아기가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 32 | 6.3 |
| 6 | 아기의 삶에 중요한 추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 106 | 21.0 |
| 7 | 첫돌 의례는 아기를 위해 반드시 해줘야하는 하는 것이라고 주위에서 권하므로 | 18 | 3.6 |
| 8 | 기타 | 1 | 0.2 |
| | 계 | 505 | 100.0 |

〈표 8〉 돌 의례에 대한 인식

| 문항 | M | S.D | 순위 |
|---|---|---|---|
| 1) 아기의 돌은 널리 알려야 한다 | 3.41 | 0.91 | 6 |
| 2) 돌은 일생에서 중요하므로 잔치를 반드시 해야한다 | 3.31 | 0.93 | 7 |
| 3) 아기를 위한 돌상은 꼭 따로 차린다. | 3.60 | 0.87 | 5 |
| 4) 돌 의례 때는 반드시 돌잡이 행사를 한다. | 3.82 | 0.90 | 4 |
| 5) 돌잡이 용구는 제각각 의미가 있다. | 3.92 | 0.78 | 2 |
| 6) 돌잡이 행사를 통해 아기의 미래를 예측해본다. | 2.70 | 1.05 | 8 |
| 7) 아기의 돌 의례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어야한다. | 3.82 | 0.86 | 3 |
| 8) 아기 돌 의례를 축하해주신 분께는 답례해야한다. | 4.02 | 0.66 | 1 |
| 전체 | 3.58 | 0.54 | |

〈표 9〉 돌 의례에 대한 지식

| 문항 | M | S.D | 순위 |
|---|---|---|---|
| 1) 돌잡이 용구의 의미 | 3.69 | 0.71 | 1 |
| 2) 돌상차림에 놓는 여러 가지 떡의 의미 | 3.12 | 0.78 | 2 |
| 3) 전통한복인 돌복의 명칭과 의미 | 2.85 | 0.84 | 4 |
| 4) 돌 의례의 역사와 유래 | 2.83 | 0.89 | 5 |
| 5) 돌 의례의 의미와 형식 | 3.07 | 0.77 | 3 |
| 전체 | 3.11 | 0.63 | |

의미(3.97)가 있다는 점, 많은 사람들의 축하가 필요하며 돌잡이 행사를 해야 한다는 등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돌 의례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가정의례로 지켜지고 있는 바를 볼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한편 돌 의례에 대한 지식은 <표 9>와 같이 5점 만점에 3.11로 전체적으로 중간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중 돌잡이 용구의 의미(3.69)에 대해서는 지식정도가 높은 편이나, 전통한복인 돌복의 명칭과 의미(28.5)나 돌 의례의 역사와 유래(2.83) 등에 대해서는 낮은 지식정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돌 의례는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한 역사적인 지식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 돌 의례의 형식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과 우리 고유의 생활문화인 돌 의례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대처할 지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야만 하는 단서가 된다고 하겠다.

### 3. 어머니들의 돌 의례에 대한 인식과 지식과의 상관관계

어머니들의 돌 의례에 대한 인식과 지식과의 상관관계는 <표 10>과 같다. 돌 의례의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각각의 지식정도와 정적인 상관관계(.300)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돌 의례인식도가 높을수록 $p<.01$의 수준에서 돌잡이 용구의 의미(.292), 돌복의 명칭과 의미(.286), 돌 의례의 유래와 역사(.235)지식과 정적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즉 돌잡이 용구나 돌상, 돌복, 돌의 의미나 형식 등에 관한 지식과 돌 의례 인식과는 특히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정적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돌 의례에 대한 인식과 지식과의 상관관계

| 돌 의례 지식정도 / 돌 의례 인식정도 | 돌 의례지식 정도 전체 | 돌잡이 용구의 의미 | 돌상차림 떡의 의미 | 돌복의 명칭과 의미 | 돌 의례의 역사와 유래 | 돌 의례의 의미와 형식 |
|---|---|---|---|---|---|---|
| 돌 의례 인식정도(전체) | .300** | .292** | .167** | .286** | .235** | .196** |
| 아기의 돌은 널리 알려야 함 | .114 | .181** | .023 | .128* | .075 | .046 |
| 돌은 일생에서 중요하므로 잔치 반드시 해야 함 | .206** | .146* | .150* | .200** | .166** | .139* |
| 아기를 위한 돌상은 꼭 따로 차림 | .285** | .183** | .197** | .262** | .235** | .231** |
| 돌 의례 때는 반드시 돌잡이 행사를 함 | .256** | .236** | .156* | .244** | .172** | .198** |
| 돌잡이 용구는 제각각 의미가 있음 | .302** | .302** | .148* | .258** | .254** | .224** |
| 돌잡이 행사를 통해 아기의 미래를 예측해 봄 | .105 | .078 | .038 | .130* | .135* | .016 |
| 아기의 돌 의례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줌 | .078 | .139* | -.011 | .068 | .061 | .054 |
| 아기 돌 의례를 축하해주신 분께는 답례해야 함 | .177** | .236** | .160* | .144* | .075 | .093 |

* $p<0.05$, ** $p<0.01$

## 4. 어머니들의 돌 의례 구성요소에 대한 중요도와 돌 의례 상품 선택의 중요도

### 1) 어머니들의 돌 의례 구성요소에 대한 중요도

어머니들은 돌 의례의 구성요소 8가지에 대하여 <표 11>과 같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 의례 구성요소의 중요도는 5점 만점에 전체적으로는 3.72로 중간점수를 상회하여 돌 의례 구성요소에 대하여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하객에게 제공될 돌잔치 음식(4.19)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았으며, 당일 주인공인 아기를 위한 배려의 공간 시간 등(4.09)에 대한 중요도, 계획하고자 하는 돌잔치의 규모에 맞는 연회장(3.86)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품격 있는 돌잔치

〈표 11〉 돌 의례 구성요소에 대한 중요도

| 문항 | M | S.D | 순위 |
|---|---|---|---|
| 1 전통적인 의례와 격식에 맞는 돌상차림 | 3.42 | 0.73 | 6 |
| 2 품격있는 돌잔치 진행 방식 | 3.36 | 0.78 | 7 |
| 3 격식에 맞는 아기 돌복 | 3.36 | 0.73 | 7 |
| 4 하객들에 대한 답례품 | 3.68 | 0.68 | 5 |
| 5 당일 주인공인 아기를 위한 배려(공간/시간 등) | 4.09 | 0.71 | 2 |
| 6 돌잔치 사진과 비디오의 질 | 3.78 | 0.75 | 4 |
| 7 하객에게 제공될 돌잔치 음식 | 4.19 | 0.68 | 1 |
| 8 계획하고자 하는 돌잔치의 규모에 맞는 연회장 | 3.86 | 0.74 | 3 |
| 전체 | 3.72 | 0.51 | |

〈표 12〉 돌잔치 연회장소 선정의 중요도

| 문항 | M | S.D | 순위 |
|---|---|---|---|
| 1 연회장소의 주차시설 | 4.21 | 0.67 | 1 |
| 2 연회장소의 접근 편리성 | 4.19 | 0.65 | 2 |
| 3 잘 알려진 연회장소의 대외적 명성 | 3.24 | 0.78 | 4 |
| 4 연회장소의 외부 공간의 화려함 | 3.14 | 0.79 | 5 |
| 5 연회장소의 호감을 주는 실내 인테리어 | 3.67 | 0.78 | 3 |
| 전체 | 3.69 | 0.54 | |

〈표 13〉 돌잔치 담당 직원 서비스의 중요도

| 문항 | M | S.D | 순위 |
|---|---|---|---|
| 1 연회장 돌잔치 담당 직원의 친절한 응대 | 4.42 | 0.62 | 1 |
| 2 연회장 돌잔치 담당 직원의 호감가는 용모 | 3.72 | 0.86 | 6 |
| 3 연회장 돌잔치 담당 직원의 철저한 업무처리 | 4.33 | 0.62 | 3 |
| 4 돌잔치 담당 직원의 돌잔치에 대한 전문지식 | 4.14 | 0.76 | 4 |
| 5 행사당일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와 서비스 | 4.39 | 0.63 | 2 |
| 6 돌잔치 후에 고객만족에 대한 직원의 사후관리 | 4.04 | 0.75 | 5 |
| 전체 | 4.17 | 0.57 | |

진행방식(3.36)이나 격식에 맞는 아기 돌복(3.36) 등은 중요도에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돌 의례를 준비하는 어머니들이 축하객을 위한 배려, 당일 돌을 맞는 아기에 대한 배려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잔치의 진행이나 돌복 등은 돌 의례 구성요소로서의 중요도에서는 우선시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어머니들의 돌 의례 상품 선택의 중요도**

어머니들의 돌 의례 상품 각각에 대한 선택의 중요도는 <표 12> ~<표 15>에 제시한 바와 같다.

어머니들은 돌잔치 연회장소 선정에서는 많은 하객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는 주차시설(4.21)과 접근의 편리성(4.19)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장소의 대외적 명성(3.24)이나 화려함(3.14)은 장소선정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바를 알 수 있다.

돌잔치를 담당하는 직원서비스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바는 전체적으로 5점만점에 4.17로 높은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무엇보다 직원의 친절한 응대(4.42)와 돌잔치 당일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와 서비스(4.39)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의 호감가는 용모(3.72)나 사후관리(4.04) 보다는 친절함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돌잔치를 담당하는 직원의 재교육에서 친절한 응대에 대한 서비스 교육이 중요시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바라 하겠다.

어머니들은 돌잔치 상품 계약과 가격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5점만점에 평균 4.11을 보였으며, 이중 계약한 토탈 돌잔치 상품가에 적합한 서비스제공(4.21)과 적절한 상품가격책정(4.16)을 중요한 선택사항으로 파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약의

〈표 14〉 돌잔치 상품 계약 및 가격 중요도

| 문항 | M | S.D | 순위 |
|---|---|---|---|
| 1 돌잔치 예약의 편리성 | 4.01 | 0.63 | 5 |
| 2 돌잔치 상품구매 계약서의 공정성 | 4.12 | 0.65 | 3 |
| 3 돌잔치 토탈 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 4.04 | 0.70 | 4 |
| 4 적절한 토탈 돌잔치 상품가격 책정 | 4.16 | 0.72 | 2 |
| 5 계약한 토탈 돌잔치 상품가에 적합한 서비스제공 | 4.21 | 0.70 | 1 |
| 전체 | 4.11 | 0.59 | |

〈표 15〉 돌잔치 하객음식의 중요도

| 문항 | M | S.D | 순위 |
|---|---|---|---|
| 1 하객에게 제공될 돌잔치 음식의 맛과 질 | 4.55 | 0.59 | 2 |
| 2 하객에게 제공될 돌잔치 음식의 적절한 가격 | 4.36 | 0.63 | 3 |
| 3 하객에게 제공될 돌잔치 음식의 위생관리 | 4.58 | 0.59 | 1 |
| 4 하객에게 제공될 돌잔치 음식의 사전 시식 제공 | 4.26 | 0.72 | 4 |
| 전체 | 4.44 | 0.54 | |

편리성(4.01)이나 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4.04)은 중요하기는 하나, 다른 내용보다는 중요도에서 다소 낮은 반응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은 전반적으로 돌잔치 하객의 음식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평균4.44)을 알 수 있다. 음식은 하객에 대한 예우라고 여기므로 돌잔치 준비에서 다른 어떠한 내용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하객에게 제공될 돌잔치 음식의 위생관리(4.58)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음식의 맛과 질(4.55), 음식의 적절한 가격(4.36), 그리고 사전에 돌잔치 음식을 시식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4.26) 받는 등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들이 돌 의례 구성 요소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가 하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으로 나타난 바(<표 11>참조)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라 하겠다.

### 3) 어머니들의 돌 의례 구성요소의 중요도와 돌 의례 상품 선택 중요도 간의 관계

어머니들의 돌 의례 상품선택 중요도 간의 상관관계는 <표 16>에 나타난 바와 같다. 돌의례 구성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돌 의례 상품 중 연회장소 선정(.578)과 하객음식(.537)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돌 의례 상품 선택 중요도 간의 관계는 돌 의례 상품선택은 $p<.01$의 수준에서 돌 의례 담당직원의 서비스와 계약 및 가격(.639), 돌 의례 하객음식(.671)과 높은 정적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계약 및 가격은 돌잔치하객음식(.650)과도 높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어머니들이 돌 의례 상품의 계약 및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담당직원의 서비스나 하객을 위한 음식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6〉 돌 의례 구성요소의 중요도와 돌 의례 상품 선택 중요도 간의 상관관계

| | 돌 의례 구성요소 중요도 | 돌의례 상품선택 중요도 (연회 장소선정) | 돌 의례 상품선택 중요도 (담당 직원서비스) | 돌 의례 상품선택 중요도 (상품계약 및 가격) | 돌의례 상품선택 중요도 (하객음식) |
|---|---|---|---|---|---|
| 돌 의례 구성요소 중요도 | 1 | | | | |
| 돌 의례 상품 중요도 (연회장소 선정) | .578** | 1 | | | |
| 돌 의례 상품 중요도 (담당직원서비스) | .531** | .490** | 1 | | |
| 돌 의례 상품 중요도 (상품계약 및 가격) | .410** | .395** | .639** | 1 | |
| 돌 의례 상품 중요도 (하객음식) | .537** | .479** | .671** | .650** | 1 |

** $p<0.01$

##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돌 의례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식조사를 토대로 점차 사회화되어 가고 있는 돌 의례 준비의 현 실태를 점검하여 돌 의례 문화변화와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가족자원경영학 분야 연구에서 돌 의례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돌 의례 연구의 방향을 제언하는 데에도 의의를 두었다. 또한 과거에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담당했던 돌 의례를 준비 해주는 전문가로 인식되고 있는 이른바, '돌잔치전문가' '돌파티 플래너' '돌의례 전문가' 등 직업적 요구에 대한 제안점도 찾아보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과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오늘날 돌 의례는 다른 가정의례와 마찬가지로 사회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돌 의례의 초대범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제 돌 의례는 가족 간의 행사를 넘어서 가족의 행사이자, 친척, 친구, 나아가 직장동료와의 유대를 위한 기회로 보는 경향이 짙다. 대부분 돌 의례 장소로는 호텔연회장이나 돌잔치 전문뷔페를 이용하고, 참석자에게 식사와 답례하기, 돌선물 받기가 주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과 현대식이 추가된 돌상과 돌잡이 용구를 준비하는 형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돌복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돌 의례 형태를 보이고 있다. 돌 의례 준비를 위한 정보는 온라인 정보체계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얻거나, 부모나 친지 친구 등 돌잔치 경험자의 조언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돌 의례에 대해 더욱 온라인정보에 의존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둘째, 어머니들은 돌 의례를 준비하면서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문가에게 돌 의례를 의뢰할 의사가 있으며, 100만원 미만의 컨설팅 비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들은 자신의 아이만을 위한 차별화된 이벤트를 희망함과 동시에 놓치기 쉬운 세부적인 사항까지 철저하게 사전준비 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시행 후 사후관리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프로의식을 갖고 있는 돌 의례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돌 의례는 아기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서, 추억을 만들고, 친척과 지인들에게 자녀의 성장을 보여주기 위한 의례라고 보고 있다. 돌 의례에 대한 인식정도는 돌잔치 축하하객에 대해 답례하기, 돌잡이 용구의 의미알기, 많은 사람이 축하하기, 돌잡이 행사하기 등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식정도는 돌잡이 용구의 의미와 돌떡의 의미, 돌 의례의 의미와 형식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나 전통 돌복의 명칭과 의미나 돌 의례의 역사와 유래 등에 관한 지식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넷째, 어머니들의 돌 의례 대한 인식정도와 지식정도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 인식도가 높을수록 돌잡이 용구의 의미, 돌복의 명칭과 의미, 돌잔치의 유래와 역사 등에 관한 지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어머니들은 돌의례 구성 요소 중 하객에게 제공될 돌잔치 음식과 당일 주인공인 아기를 위한 공간이나 시간의 배려, 돌잔치 규모에 맞는 연회장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돌 의례 상품선택의 중요도에서 구체적으로는 연회 장소에서는 하객이용에 불편이 없는 주차시설과 접근의 편리성을 중요하게 보았고, 돌잔치를 담당하는 직원의 친절한 응대와 당일 친절한 안내서비스 등을 우선시하였다. 또한 돌잔치 상품계약과 가격에서는 상품 가에 적합한 서비스와 적절한 가격책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객의 음식에서는 음식의 위생관리와 음식의 맛과 질 등을 중요하게 여겼다.

여섯째, 어머니들은 돌 의례 구성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돌 의례 상품선택 중에서 연회장소 선정, 하객음식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돌 의례상품간의 중요도에서는 돌 의례 상품계약 및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담당직원의 서비스나 하객을 위한 음식선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돌 의례에 대한 인식함양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돌 의례는 개인의 일생에서 중요한 의례로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의미와 형태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독특한 생활문화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돌 의례의 주관자가 되는 어머니, 또는 손자의 돌 의례의 조언자가 되는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돌 의례를 관행적으로만 하는 차원을 넘어 돌 의례의 의미, 역사적 변화, 고유문화로서의 특징, 돌 의례 준비내용, 돌 의례 상품 등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가정의례를 통하여 생활문화의 전수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사료된다. 과거에 주로 가정 내에서 비형식적 교육으로 이루어져 왔던 교육의 많은 부분이 사회로 이양되고 있는 가운데에 가정의례 교육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진 교육이 될 우려가 높아 생활문화 단절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관습처럼 지켜오는 것이 가정의례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인 노력을 통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시민강좌나 문화센터강좌, 교육방송을 통한 교육 등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부분 돌 의례를 외부장소에서 시행하려하고, 본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돌 의례 전문가에게 진행을 요청하는 등의 현 실태를 감안하여, 돌 의례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게도 돌 의례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돌 의례 전문가에게는 친절응대를 중심으로 하는 CS 교육뿐만 아니라, 돌 의례 상품 내에 존재하는 '문화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는 교육이 포함되고, 돌 의례 상품의 경우, 의뢰가격대비 상품의 질적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돌 의례 상품 개발 및 판매자가 전통 돌 의례에 대한 가치나 의미 파악 없이, 잘

못된 모방으로 상품들을 확산시킴으로써 파생될 문화전수에서의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돌 의례 구성요소나 상품선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바가 하객에 대한 음식이 위생적이고 질적으로 우수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바가 우선순위로 여겨지고 있는 바는 앞으로 이와 관련한 돌 의례 업체에서는 특히 유의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앞으로 이러한 분야로 진출을 희망하는 생활과학도들에게도 가정생활문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학문적 축적과 인식전환, 교육기회 확대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미래에 부모가 되고 혼인 후에는 곧 자녀의 돌 의례를 주관하게 될 예비부부들을 대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에도 돌 의례 인식과 지식정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생활문화의 계승차원에서도 보다 긍정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를 위하여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에서는 그동안의 가정생활문화 및 가정의례 관련 선행연구에 토대하여 관련된 연구를 더욱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구체화시켜 다양한 전달체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늘어날 돌 의례 전문가의 수요에 따라 가정 및 가족전공 관련 학과에서도 의례전문가 양성방안의 교육 프로그램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사결과에서도 돌 의례전문가에게 의뢰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난 바는 물론이고,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다문화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각 시군구, 각종 단체에서도 이와 관련한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례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정보를 갖춘 인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앞서 고찰되었던 가정의례의 변화양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의례의 외형적 변화는 간소화, 편리화, 사회화, 수행의 전문가 등장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바, 돌 의례에 있어서도 전문가양성의 시대적인 요청을 반영한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돌 의례는 우리사회에서 존속될 중요한 가정의례이자, 뜻 깊은 가족행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사회화 과정에서 파생되고 있는 돌 의례 전문가에 대한 직업적인 요구, 현시점에서의 돌 의례에 대한 인식과 지식정도, 돌 의례 상품을 선택하는 소비자인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돌 의례 상품선택의 중요도 등을 알 수 있었다. 단,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확대해석에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보완해 나가는 추가적인 후속연구와 돌 의례 현상의 문화적 역사적의미 등이 다각적 견지에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추가로 후속연구에서는 실태조사 차원에서 현행 돌 의례 절차나, 관련업체의 실태조사, 돌 의례 상품이용 소비자들의 만족조사 등이 기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교육프로그램 개발차원에서는 돌 의례 전문가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돌 의례교육의 효과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요청된다. 또한 생활문화의 비교 문화적 연구로 동아시아 국가의 돌 의례 형식과 절차에 관한 비교 연구, 다문화가정에서의 돌 의례 연구, 재외국민들이 지켜가고 있는 돌 의례 연구, 특히 생활문화에 관한 연구로 시도되지 못해 왔던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 등지에 이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한인후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켜오고 있는 우리의 돌 의례에 대한 연구 등도 관심을 갖고 향후에도 연구되어야 할 바로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1) 구숙회·최배영(2011). 서울시 중년기 주부의 추모의례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2), 23-44.
2) 국사편찬위원회. 朝鮮王朝實錄. http://sillok.

history.go.kr
3) 계선자·이정우·박미석·김연화(2005). 성년례 프로그램 모형 개발 및 성년례 참여자 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학술대회논문집, 76.
4) 김소연(2011). 소셜 미디어에 나타난 돌 파티 웨어 스타일 분석 및 디자인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김순진(2003). 성년례의 활성화를 위한 모형개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김시덕(2005). 현대도시공간의 상장례 문화. 한국민속학, 41(1), 51-94.
7) 김용숙(1987). 조선조 궁중 풍속 연구. 서울 : 일지사.
8) 김인옥(1997). 전통제례에 관한 생활문화적 고찰과 현행제례의 실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 김인옥·안혜숙(2003). 제례에 대한 대학생의 의식 및 수행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3), 113-129.
10) 김인옥·안혜숙·주영애(2006). 수연례에 대한 대학생의 의식조사.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지, 9(2), 65-74.
11) 김효정(2002). 연회상품 선택속성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과의 인식 비교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김정희(2009). 돌잔치의 기획 및 연출을 위한 화훼장식 표준 모델의 개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3) 김희경(2005). 돌 및 생일 상차림 실태조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김화경(1999). 관광호텔 연회상품 선택행동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5) 문옥표(2007). 현대한국인의 일생 의례 ; 가정제례의 변용을 통해 본 현대 한국인의 가족관계와 젠더. 한국문화인류학, 40(2), 287-319.
16) 민하영·유안진(2004). 한국의 출생의례와 아기행사 풍속의 문화간, 세대간 비교 연구: 홍콩 및 미국의 할머니 세대와 어머니 세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2(4), 55-68.
17) 박상현(2010). 돌잔치특성 및 개최장소 선택속성에 대한 비교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 박수정(1989). 도시주부의 제례행례의식과 제례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 박순천(1986). 도시주부의 가정생활관과 제사행례의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박혜인(1987). 한국전통혼례의 가족사적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1) _____(2001). 가정의례의 변화와 21세기의 지향모색. 한국가족복지학, 6(1), 31-54.
22) 서울특별시(1993). 서울민속대관 동과의례. 서울 : 서울특별시.
23) 박광훈(2011). 복식, 서울 :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24) 손상희(2006). 현대 음식 소비현상의 소비 문화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 21(3). 241-246.
25) 심영자·김정선·전희정(1999). 한국의례음식과 상차림에 관한 인식과 실행. 한국조리과학회지, 15(2), 146-157.
26) 심화진(1998). 전통아동복에 나타난 색동의 의미.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 초록집, 47-48.
27) 안호숙(2004). 전통 돌 의례의 의미와 현대적 제안.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8) 안혜숙·주영애·김인옥(2002). 한국의 가정의례와 세시풍속. 서울 : 신정.
29) 양기승(2002). 호텔 뷔페 레스토랑 이용객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0) 유안진(1986). 한국의 전통육아방식.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31) 이광자(1999).우리나라의 혼례문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2(2), 203-206.
32) 이기숙(2004). 낙동강 남부지역의 상례문화 실태조사; 부산의 교사집단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7-11.
33) 이길표(1998). 돌상에 대한 생활문화적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연구논문집, 36, 399-432.
34) 이문건 저(1500). 이상주 역주(1997). 양아록. 서울 : 태학사.
35) 이온표(2003). 현대의 돌맞이 실태조사. 아시아민족조형학보, 4, 136-165.
36) 이정우·김명나(1990). 도시주부의 혼·제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여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05-124.
37) _____(1993). 주부의 가정의례에 대한 의식 행동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결혼식 제사 및 회갑연을 중심으로. 생활과학연구지, 8, 23-50.
38) 이정우·김연화·김경아(2000). 성년례시연을 통해 본 성년례 모델 개발의 탐색적 연구-참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4(1), 113-128.
39) 이지영(1998). 전통사회 혼인에 관한 대학생의 의식 조사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0) 임종송(2011). 돌 이벤트 구성요소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관광축제호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1) 정영숙·권수애·장혜자(2001). 충북지역 대학생과 그들의 어머니의 혼례관련 의식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0(2), 165-178.
42) 장상옥(2004). 여대생 가정의 가정행사 수행 및 사회화와 행사의식 변화: 최근 10년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53-264.
43) 정은선(2005). 미혼남녀의 가정생활관과 가정의례문화인식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4) 조희선·이혜자·이윤정(2002). 성년식의 정착을 위한 탐색적 연구-대학생의 필요성 인지를 중심으로-. 생활과학, 5, 255-268.
45) 조희진·김정신(1998). 집단성년례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5, 141-172.
46) 조희진(1999). 첫돌의례와 복식의 변천과정. 복식문화연구, 7(4), 38-51.
47) 조희진·박찬옥(2010). 한국의 출생의례에 대한 실태조사. 여성교양학회지, 19, 155-183.
48) 주영애(1997). 바람직한 조문예절의 모색. 한국여성교양학회지, 4, 224-245.
49) _____(2010a). 한국전통혼례문화의 계승을 위한 혼례절차에 대한 미혼남녀의 인식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1), 57-77.
50) _____(2010b). 가족행사로서 성년례 정착을 위한 방안연구-어머니들의 성년례에 대한 인식과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1-20.
51) _____(2011). 가정의례에 대한 여대생의 공감과 적용을 토대로 한 가정의례교육 방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3), 1-22.
52) 주영하(2003). 출산의례의 변용과 근대적 변환: 1940~1990. 한국문화연구, 7, 201- 232.
53) 최배영(1999). 가례서를 통해 본「혼례」관 연구: 가례, 가례집람, 사례편람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4) 최배영·최경희·이경란(2010). 조선시대 첫돌의례문화. 서울 : 이담.
55)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제례 및 성묘실태와 변화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 용역보고서, 26.
56) 한국민속대관(1980). 1卷 儀禮生活.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57) 홍나영·이은진·박선희(2011). 20세기 한국의 혼례문화 변천에 관한 연구-서울과 경상도의 지역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과학회 2004년도 학술대회, 113.
58) 황경애(1994). 혼례행례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9) 경향신문(1984). 아기돌복대여. 1984. 1. 4. 7면.
60) 경향신문(2013). 김항곤 성주군수, 다자녀가정 등 합동돌잔치 열고 축하. 2013. 9. 13. http://news.khan.co.kr
61) 다음사전 의례. http://search.daum.net
62) 동아일보(1938). 남녀아가구별이 잇는 돌상 차리는법. 1938. 3. 19. 석간.
63) 동아일보(1964). 아들의 첫돌맞이. 1964. 7. 28. 6면.
64) 동아일보(1989). 소련 속의 고려인을 찾아서 사할린에서 타슈켄트까지. 1989. 10. 13. 17면.
65) 매일경제(1973). 아동복쇼핑요령. 1973. 9. 5. 8면.
66) 매일경제(1984). 뿌리내리는 宴會行業. 1984. 5. 30. 9면.
67) 한국경제(2003). 돌복 한 벌에 40만원. 2003. 10. 7. http://search.hankyung.com
68) THEPR news(2013). '작은결혼식'캠페인 그 후...호텔 마케팅 '위축'. 2013. 2. 12. http://www.the-pr.co.kr/news

■ 투 고 일 : 2013년 10월 6일
■ 심 사 일 : 2013년 10월 8일
■ 심사완료일 : 2014년 1월 21일